

# 선거 막판까지 광주지역 네거티브전 ‘몸살’

### 동남을시·구의원, 김성환 비판 vs 金 “법적 책임 물을 것”

### 새미래 “민형배 ‘위장 병역’ 해명 거짓” vs 민 “정치 공작”

4·10 총선 막판까지 광주지역에서는 후보간 네거티브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남을 선거구 시·구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무소속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서던 당선되면 당원·당규상 불가능한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거나 안되면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신청하겠다는 등 정치인의 도의상 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무소속 김성환 후보를 겨냥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홍기원·박미정 광주시의원과 김재식·이지애·박종균·김현숙·노진성·문선화 동구의원, 박용화·박상길 남구의원 등으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일이 다가오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며 “특정인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용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받겠다는 것으로 참 염치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 “선거일을 앞두고 또 다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시·구의원들의 비방과 흑색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가담한 시·구의원들에게 강력 경고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복당이나 조국혁신당 입당을 신청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자유이며, 안도걸 후보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의혹은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캠프 압수수색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를 거짓 발언이라고 역지 주장만 떠들어대는 시·구의원과 이를 방관하는 후보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광산을 선거구에서도 각 후보 진영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민주당원이자 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 백광현씨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민형배 후보

가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시종 새로운미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백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공채에 응시했다.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중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줬다”며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는 “2006년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영리 추구 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정치 공작에 분노한다.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 순지사, 나주서 전통정원 조성 방향구상

### ‘죽설현’ 방문 “전남 대표 자연생태정원 지금부터 준비”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한 예술가가 50여년 간 자연 그대로 최대한 살려 가꾼 정원을 둘러보고 전남을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 식 전통정원 조성 방향을 구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금천면 소재 한국 식 전통정원인 ‘죽설현’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듣고 정원 관계자와 함께 숨어있는 전남 정원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죽설현은 나주 출신 박태후 동양화가 가 지난 50년간 가꾼 개인 정원이다. 인공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성했다. 나주 금천면 촌곡리 3번지 35㎡ 규모의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박 화백이 호남원예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직접 씨를 뿌리며 혼자 일궈냈다.

허백련(1891-1977) 화백과 조카 허의득(1934-1997) 화백이 각각 출생한 소

설현을 만들어 생활한 것처럼 두 사람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죽설현’이라 명명했다.

죽설현은 이름과 달리 대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수백종의 자생꽃, 나무와 화초, 기와 담장길, 돌탑 등을 소재로 해 사계절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봄에는 붉은 매화와 노랑꽃창포가 어우러지고 초록의 아름다움과 맥문동 보라꽃이 여름을 알린다. 풍요로운 가을에는 주황색의 꽃무릇이 떨어지고 눈덮인 겨울의 숲은 운치를 더한다.

김영록 지사는 “아름다운 정원과 숲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며 “40-50년 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전남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 정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발사되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고성능 영상 레이다를 탑재해 전후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이날 우주제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제공>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4일부터 운영

### 외국인 주민 안정 정착 지원 원스톱 서비스

광주시는 8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월 공모 선정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해 매년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투입, 외국인 주민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인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옛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통·번역 ▲채류·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협업체 기관·단체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원화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그쳤던 것을 넘어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오는 2026년까지 맡는다. 1999년 설립된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 내·외국인 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 광주·전남 체험형 안전교육 협력

광주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8일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캠퍼스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및 상호 지식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교육생, 대학 관계자 대상 안전체험 교육 운영 협력 ▲상호 지식정보 교환·교육시

설 등 사용 제공 ▲안전·재난 예방 교육 홍보 ▲기타 기관 간 합의를 위한 협력 분야 등을 공동 추진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기관 간 교류를 통해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체험교육으로 지역 안전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전남도민 드론 활용도 향상 지원

### 도인재개발원·전남캠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 협약

전남도인재개발원은 8일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전남캠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대한드론협회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체험 등 상호협력

인재개발원의 과정 지원, 대학 전문 인력과 시설, 교육 업체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드론 체험 과정은 도민의 드론 활용 능력 향상 및 드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인재개발원은 도민 드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드론교육 시설 활용을 지원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AI) 드론 코딩, 드론 비행, 드론 촬영, 드론 방재 등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말 김종심(641229-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 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4년 단245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김성수  
○한정승인수리일 : 2024년 4월 3일  
○공고기간 : 2024년 4월 9일 ~ 2024년 6월 9일  
○연 락 처 :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302번길 49, 101동 3층 302호 (우암동) (010-2372-9511)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유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